

한국 전통·정신 문화 탐구...예술원 회원 오승우 화백 별세

화순출신 인상주의 선구자 오지호 화백 장남...국전 4년 연속 특선 '100산' 등 다양한 연작...178점 작품 기증 '오승우 미술관' 문 열어

원로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3일 오후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오승우(1930~2023) 화백은 평생 한국의 전통과 정신 문화를 탐구해온 작가였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100산', '십장생도' 등 시기마다 다양한 연작을 선보이며 우직하게 작업활동을 이어왔다.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 고(故)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인 고인은 동생인 고(故) 오승운(1939~2006) 화백과 함께 미술 일가를 이뤘다. 두 아들 병욱, 상욱씨도 각각 서양화와 조각을

전공했다. 화순 출신으로 1950년 조선대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그림에 몰두한 고인은 광주여고에 근무하던 1957년부터 '법당 내부(화엄사)' 등으로 한국 미술가의 등용문인 국전에서 4년 연속 특선을 수상, 1961년 불과 31살의 나이에 국전 추천작가 반열에 올랐다.

1993년에는 부친 오지호 화백에 이어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으며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성육문화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불상, 고궁, 전통, 사찰 등 한국적 근원에 대한 탐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고인의 대표작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130여개의 산을 직접 올라 완성한 '100산 시리즈'다. 백두산, 한라산, 무등산, 월출산, 설악산 등의 명산을 찾은 그는 담대한 선과 화사한 색채를 통해 변화 무쌍한 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66세에 중국 북경에 1년 동안 체류하며 완성한 '동양의 원형' 시리즈는 평생의 주제였던 동양 정신의 근원을 찾는 연작으로 이후 몽골,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각국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십장생'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역사 기록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오화백은 화가로서 치명적인 시력의 저하와 안구 장애를 극복했다. 1986년과 1987년 양쪽 눈을 차례로 수술한 탓에 늘 쓰고 다니는 짙은 선그라스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는 "화가는 독서 등을 통해 안목을 키워야하는데 눈이 앓을수록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대신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말했다. 파리 등 여행지의 감흥은 그의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됐다.



지난 2011년 무안 오승우미술관 개관식에 참여해 대표 시리즈 '십장생' 앞에서 포즈를 취한 고(故) 오승우 화백. <광주일보 자료사진>



1938년 개성 송도고보 교사로 근무한 아버지 오지호 화백 등과 촬영한 가족 사진. 왼쪽이 오승우 화백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완성한 창작 활동과 더불어 고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구상화단의 대표 그룹인 (사)목우회다. 구상화단과 후학들을 위해 1983년부터 10년간 목우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구상의 리더 역할을 했다.

그는 예술의 사회 환원에도 관심을 쏟았다. 2011년에는 그가 기증한 178점을 바탕으로 '오승우미술관' 이 문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오 화백의 상설전과 함께 후배 작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

획전을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을 기증한 그는 2016년 "후배 미술학도들을 위한 격려와 학교 발전에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모교인 조선대에 "내 생의 마지막 기증이 될 것"이라며 27점을 기증했다.

고인과 조선대 미술대학 선배로 관계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황영성 화백은 "오 화백은 광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으로 명산 시리즈를 비롯해 기록

화 등을 많이 남겼다"며 "그림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이 뚜렷했고, 조선대 미술대 회장도 맡으시는 등 후배들도 많이 아끼셨다"고 말했다.

고인이 광주여고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로 매년 오 화백을 만난 정승규 화백은 "땀방 아래서도 4-5시간 그림을 그리시던 열정적인 선생님이셨다"며 "언젠가 칸나를 한아름 안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리라고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친숙하고도 낯선' 한국화 향연 '광주화루展'

오는 7일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맞아 향토 은행인 광주은행 본점에서 한국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은행은 오는 7월 7일까지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광주화루展'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 한국화와 관람객 사이의 거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의 '친숙하고도 낯선'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기념전의 의미를 담았다.

광주은행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현대 미술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그림과 예향의 도시 광주의 맛과 특색을 선보이고자 광주비엔날레와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화루전 역대 대상 수상작가인 고현지·박재철·이동환·이성경·이현민·이호익 작가의 작품 50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광주은행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공휴일 휴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개최 기념 7월7일까지 광주은행 아트홀 고현지 등 6명 작가 50점 전시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창립 54주년을 맞아 본점 1층에 지역민을 비롯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광주은행 아트홀'을 개관했다.

이후 이 공간을 채우고자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경합을 펼치는 '광주화루' 공모전을 시작했다. 지난 6년간 수상작가 28명, 입선작가 58명을 선발하고, 이 작가들의 출품작품을 전시해 '광주화루展'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주최하는 '광주화루 공모전'은 한국화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심사 과정을 단독 심사 시스템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국화 분야에 특화된 대표 공모전, 모두가 그림 하나



광주은행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하는 광주화루전을 오는 7월 7일까지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진행한다. <광주은행 제공>

로 경쟁하고 교류하는 뜨거운 공모의 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995년 광주비엔날레

출범부터 공식 후원사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은행은 이번 기념전을 계기로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우리지역

광주가 전 세계에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합류: 미술과 행성의 이야기' 나눠요

7~8일 전시 연계 심포지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 전시 주제와 연계한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 내셔널과 공동주최로 심포지엄 '합류: 미술과 행성의 이야기'를 오는 7일과 8일 이들 간 광주비엔날레 거시기술에서 개최한다.

3개 패널과 2개 퍼포먼스, 기조 강연,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구성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은 상호 공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상상하는 대안적 모델과 실천에 참여하는 예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7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프란시스 모리스 테이트 모던 관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숙경 예술감독의 심포지엄 소개가 이어진다.

이후 '원천: 예술의 활성화', '저류: 모호한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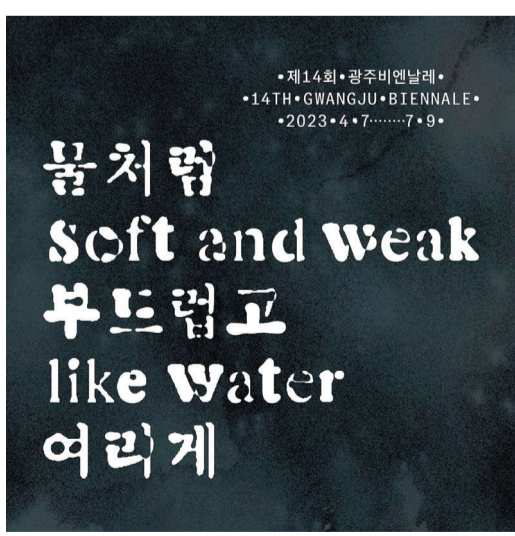
들', '강 어귀: 경계탐색'을 타이틀로 3개 패널과 함께 볼레베즈웨 시와나의 퍼포먼스가 1전시관에서 마련된다.

'원천: 예술의 활성화'에 참여하는 연사로는 헤라 뷔슈타쉬즈얀, 유키 키하라 등이 참여해 각각의 고유한 예술 언어가 공유된 역사 및 집단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저류: 모호한 서사들'에는 장지아, 홍이현숙, 이승애, 오석근 작가가 연사로 참여해 특수한 지역적 맥락과 더 넓은 문화적 서사들의 관계 안에서 작업을 어떻게 지속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강 어귀: 경계탐색'에는 알리자 시넨바움, 고이즈미 메이로, 타우스 마카체바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8일에는 노에 마티네즈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마카레나 고메즈-바리소교수의 기조 강연이 마련된다.

'바다 가장자리에서의 분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는 예술적 실천, 미래의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든 패널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에서는 공동체가 직면한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광주비엔날레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명혜영인문교실 열어요

30일까지 인문학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이 101기 정기강좌와 명혜영인문교실을 오는 30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연다.

먼저 광주시민인문학 정기강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화·수 제외) 격주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월요일은 '몸의 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인체화된 마음에 관하여'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목요일은 위상복 교수가 '맑스 '자본론' 강독-정치경제학 비판 3'을 주제로 강의하며, 금요일은 하루키월드를 모티브로 신우진 이사장이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를 강독한다. 토요일은 신광용 책임연구원 등이 '인문실험-인정투쟁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일요일 인문학시간은 진정현 이사 등이 '봄산 트레킹 in 한재골'을 답사할 예정이다.

101기 정기강좌와 맞물려 시작되는 명혜영 박사의 명혜영인문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



명혜영

한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격주로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일본문화산책'과 '책 글동아리'는 각각 '책과 여행으로 만난 일본문화 이야기', '김희경 에세이 '에이징 솔로' 읽고 쓰기 강의한다. 수요일 매주 오후 2시에 여는 찾아가는 인문학은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영화로 인문학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목요일과 금요일 격주로 오후 7시에 시작하는 '젠더연구회'와 '철학스터디' 시간에는 각각 '오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하다'', '앙리 베르그송 강독-몸으로서의 정신 '물질과 기억''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